

문제1)

제시문 (나)의 언어현상은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줄여서 적은 경우, 초성만 적은 경우, 발음나는대로 적은 경우— 의미에 특징이 되는 단어로 적은 경우 이 4가지 기준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첫번째로 줄여서 적은 경우는 뽕삼질, 짱나, 즐겜, 냉무, 방가, 갠전, 강추, 솔대, 어쇠요, 글쿤, 삼포시대, 직따, 생강녀, 능청남, 운도남, 운도녀가 있다. 두번째 초성만 적은 경우는 니코니코, 기러, 니, ㄱ, ㅇㅇ이 있다. 세번째 발음나는 대로 적은 경우는 추카추카, 시러, 마자, 살양하눈, 겨머안, 머쩌근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미에 특징이 되는 단어로 적은 경우는 손주병, 알바추노, 타조세대, 월급루팡, 돌직구남, 돌직구녀, 김치녀, 신생아남, 신생아녀, 등골백팩이 있다.

제시문 (가-1)에 따르면 (나)의 유형 중에서 줄임말, 초성만 적은 말, 발음나는 대로 적은 말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 (가-1)에 따르면 도덕이나 관습같은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의 기본적 규칙이 깨진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불편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받는다. (나의 이러한 유형들은 맞춤법이라는 사회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 반면에 의미에 특징이 되는 단어를 적은 경우는 맞춤법이란 사회 규범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창의적인 단어를 생산할 수 있었다.

제시문 (가-2)에 따르면 (나)의 유형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가-2)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익숙한 경계선을 넘는 일탈적 사고나 행동들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다. 또 이러한 행동과 사고방식이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는다. 또 창조적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회 규범에 어긋난 성 소수자들의 비율이 높을 수록 그 사회의 GDP수준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일상적이고 비관례적인 (나)의 유형들은 그 사회의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는 긍정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문제2)

제시문 (다)에서는 사회규범의 다양성과 변동성을 보여준다. 그 예시로 마리화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마리화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마약류 취급자 이외에 마리화나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하면 법률의 규정을 받는다. 반면에 네덜란드에서는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합법이다. 심지어 마리화나를 공식적으로 피울 수 있는 곳인 '커피숍'도 존재한다. 또 미국은 1930년대까지는 의학용 이외의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유통, 판매,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그러나 2012년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는 마리화나를 다시 합법화 시켰다. 이렇듯 마리화나에 대한 사회규범이 각 나라마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리화나에 대한 사회규범이 변동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는 1990년대에는 커피숍이 1400개에 육박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보수적으로 변화하면서 커피숍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또 미국에서는 1930년대까지는 마리화나가 불법이었지만 마리화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2012년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는 마리화나가 합법으로 바뀌었고 이 현상이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라)를 보면 (가)의 A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규범 즉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사법 시험 지원율 중 여성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면 B국은 1999년과 9년이 지난 2008년 모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38%와 62%로 전혀 변화가 없다. 또 1999년 A국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82.8%와 17.2%였지만 B국은 62%와 38%이므로 각 사회마다 사회규범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